



주간 통일정세

2007-0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경제강국 건설 투쟁’ 관련 당 간부 분발 촉구(10/23,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당간부들의 분발을 촉구
 -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꾼들은 사업 권위도 있었고 군중의 신망도 높았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당 간부들의 권위와 신망부족을 질타하면서,
 - “오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의연히 많은 애로와 난관이 놓여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일꾼들이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무슨 일이나 끝장을 보고야 마는 기질을 높이 발휘해야 ”하며
 - “당의 노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꾼(책임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다”며 당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 강조

- **‘현대적 과학기술’과 ‘실리’에 기초한 자력갱생 강조(10/30, 노동신문)**
 -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과학에 의거하지 않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며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그것이 자력갱생”임
 - “우리 당이 내세운 21세기의 자력갱생은 실리에 기초한 자력갱생”임을 강조

- **경제부문 당조직에 ‘먹는문제 해결’ 촉구(10/29, 노동신문)**
 - ‘당세포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세포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 경공업혁명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소비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 사상교양 강조

- **미국의 대북 경제원조에 대한 경계 촉구(2007년 3월호, 정치법률연구)**
 -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은 사회발전에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이 떠드는 교류, 협조는 다른 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 한 것이며 “미국은 진심으로 뒤떨어진 나라들



을 원조하고 협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경제원조에 대한 경계 촉구

다. 인사

- **김석철 신임 미얀마 대사 임명 (10/25, 조선중앙통신)**
 - 김석철 대사: 52세인 김석철, 1989년 이후 북한 외무성내 여러 부서에 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4년 이후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으로 근무

라. 기타

- **적십자병원 약무병동, 구강수술장 준공(11/4, 연합)**
 -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이 4일 준공
- **은천군서 단군~고려 고분 동시 발굴(11/2, 조선신보)**
 - 북한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에서 단군 및 고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고분들이 동시 발굴됐다고 보도
- **北·美, 의학부문 첫 교류 (11/2, 연합)**
 - 북미간 의학 교류는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11/2, 연합)학의 말콤 길리스 전 총장이 주선하고 미 국무부가 승인해 시작됐으며 이번 3차 방문단의 경우 지난달 27일 도착, 라이스대 의학연구소와 앤더슨 메디컬 암센터 및 텍사스 심장센터 등을 시찰하고 의학 정보를 교류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한·미·일 통합작전지휘체계 추진 비난(10/31, 평양방송)**
 -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태평양군사령부를 통합한 ‘미래형 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주일미군의 재편, 재배치에도 박차를 가해 한반도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군사지휘체계를 통합하고 여기에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한국군)을 망라한 하나의 통합작전 지휘체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 “현재 미군이 유엔군사령부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사령부로 만들려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무력재편과 증강 책동은 북침전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비난



- 미국의 핵군축 관련 이중기준적용에 대한 비난(10/30, 민주조선)
 - “어느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어느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절대 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동맹자들이 핵무장화하는 데 대해서는 함구무언하고 이른바 ‘적대국가’들의 핵 활동에 대해서만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핵군축 관련 ‘이중기준적용’에 대하여 비난

나. 북·중 관계

- 北·中, 온성 물자교류시장 건립 공식 추진(11/1, 길림신문)
 - “온성군인민위원회가 일전 조선(북한) 무역성 중앙수출입물자교류 회사에서 내각의 위임을 받아 온성군인민위원회와 중국 투먼시정부 간 체결한 물자교류시장 건설 계약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

다. 북·일 관계

- ‘납치문제’ 문제 해결 요구 관련 대일 비난 지속(10/31, 조선중앙통신)
 - ‘구차스러운 청탁놀음’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빗대어 계속 못되게 놀아대고”있으며 “얼마 전 외상 고무라는 납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북조선을 테로(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주일미국대사에게 애걸했다”고 지적
 - “일본이 자기의 죄악에 찬 과거사는 불문에 붙이고 오히려 피해자인 듯이 세상을 오도하면서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계속 끼어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한사코 들고 나오는 것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 보려는 것”으로 대일 비난 지속
- 일본 NHK 북송 특별프로에 대한 비난(10/29, 조선신보; 10/20, 조선중앙통신)
 - NHK가 “지난 8일 귀국사업을 걸고(트집잡고) 우리 나라(북)를 비방 중상하는 그 무슨 특별프로란 것을 만들어 비열한 반공화국 선전을” 벌였으며 이것은 “동포적이고 인도적인 귀국사업을 비방 중상해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하고 재일동포 속에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불신을 조작할 것을 기도한 모략선전”이라고 비난

라. 북·러 관계

- 노동당 대표단 러시아 방문(10/30, 평양방송)
 - 북한의 공병길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와 벨로루시를 방문
 - 지난 10월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



에 이어 김광영 임업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

마. 기타 외교 관련

● 北·캄보디아, 투자보호·해상운수협정 체결(11/2,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 1일 프놈펜에서 훈센 총리와 회담, 양국 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이 있었음
- 회담에는 북측에서 림경만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김영일 외무성 부상, 리인석 캄보디아주재 북한대사가, 캄보디아측에서는 호남홍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케오푸트 라스메이 푼싹당 위원장, 참 프라시드 상무장관, 벵 세레이봇 문화부장관, 찬 사룬 농림부장관, 키에우 카나리드 공보장관 등이 참가

● 北·말레이시아 총리 회담 (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알둘라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림경만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박용연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배석했으며,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시예드 하미드 외무장관과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임시대사 등이 참가

● 대 자본주의 나라 우호관계 발전 상황 강조(10/29, 노동신문)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날로 더욱 높아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과 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최근 몇 년사이에 세계 여러 대륙의 많은 나라들과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었고 우리나라를 멀리하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있다”고 밝힘
- “공인된 국제관계 규범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주장

●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대외관계 확장 의지 강조(10/29, 조선신보)

- 6자회담 합의가 이행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미얀마 및 니카라과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스와질랜드, 도미니카, 과테말라, 몬테네그로와 외교관계를 잇달아 수립한 것을 성과로 지적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관계

●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개최(10/29~30)

-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 톤 상당 지원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번 협의는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 중 45만 톤은 중유로 제공받고 나머지 50만 톤은 발전소 개보수에 필요한 설비를 받겠다는 북한의 희망사항을 기초로 이루어졌음
- 각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희망하는 화력발전소 개보수 설비 및 철강 자재들이 북측이 밝힌 용도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전략물자통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였음
-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 속에 중유 50만 톤 상당의 설비 제공 건과 관련, 어느 시점의 중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총량을 결정할 지에 대해 초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음
-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남북자 문제를 포함한 일-북 관계정상화의 진전이 있어야 중유 및 설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음

나. 미-북 관계

● 미 구축함, 피랍 북한 배 구출작전 전개(10/30)

- 바레인 연합해양군 소속인 미 구축함 제임스 E 윌리엄스호는 북한 화물선 대흥단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구출작전을 전개했음
- 이 과정에서 2명의 해적이 사망했으며, 5명이 붙잡혔고, 북한 선원 3명이 중상을 입었음
- 북핵 6자회담 진전에 맞춰 북-미간 관계정상화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구출작전이 전개되어 향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음

● 미-북, 불능화 실무협의(10/31)

-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연말까지 영변 3개 핵시설 불능화의 구체적 이행 방안,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종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음
- 힐 차관보는 “내년이 되면 무기화된 플루토늄을 해체·폐기하는 중요



단계에 들어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미 핵불능화 실무팀, 방북(11/1)**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 실무팀 9명은 영변의 3개 핵시설 불능화 이행을 위해 방북했음
- 실무팀은 일주일 가량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합의한 3개 핵시설에 대해 폐기 및 철거, 해체 등의 방식으로 5일부터 불능화 작업을 진행함
- 2개 팀이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2주 후에 두 번째 실무팀이 방북해 불능화 작업을 계속 진행함

● **미,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내년 초 유력**

-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면 내년 초 테러지원국 해제 및 북·미간 관계정상화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내년 8월까지 완전한 핵폐기를 이룬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11/1)

● **미 국방장관, “북, 이란에 사거리 2,500km 미사일 수출”**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사거리 2,500km 상당의 중거리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했다고 밝혔음(11/1)
- 지금까지 북한은 이란에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 B, C형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공식돼 왔음

● **미·북, 의학부문 교류 첫 확인**

- 주채용 조선적십자사종합병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의료진 방미단은 로스엔젤레스 ‘굿 사마리탄 병원’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11/1), “미·북간 의학부문 교류는 올 3월부터 진행됐고 이번이 3차 방문”이라고 밝혔음
- 북·미간 의학교류는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대학의 말콤 길리스 전 총장이 주선하고 미 국무부가 승인해 시작됐으며, 1차 방문단은 암 전문의 2명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차 방문단은 심장 전문의 3명이 6월부터 9월까지 각각 방문해 3개월간의 연수프로그램을 마쳤음

● **힐, “핵가진 북과 평화협정 체결 안할 것”(11/2)**

- 힐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구조를 재확인했음
- “미국은 불능화 직후 북한이 핵폐기 단계로 움직일 때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힐, “핵폐기 1월 초 시작”**

- 힐 차관보는 도쿄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이어 비핵화 3단계(핵폐기 조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내년 1월 1일 혹은 1월 2일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1/3)

다. 중·북 관계

● **중·북, 온성군에 물자교류시장 건설 합의**

- 중국 언론은 북·중 양국이 신의주에 이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공동 물자교류시장을 건립키로 정식 합의했다고 보도(11/2)했음
- 물자교류시장에서는 주민생활 및 농업생산과 직결된 의류, 식료품, 식량, 농기구, 비료 등이 주로 거래될 계획임

2. 주변국 관련

가. 미국 관계

● **게이츠 미 국방, 한·중·일 순방**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1월 둘째 주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음(10/31)
- 게이츠 장관은 이들 3개국 국방장관과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나. 한·미 관계

● **한·미 6자 수석대표, 불능화·신고 이행 협의(11/2)**

-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불능화 이행팀의 방북을 계기로 본격 개시된 북핵 불능화 및 신고의 이행 계획을 협의했음

다. 미·중 관계

● **미 하원, 탈북자 복송중단 촉구 대중 결의안 채택(10/29)**

-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라. 기타 관계

● **유엔총회, 한반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0/31)**

- 제62차 유엔총회는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